

왕방회 대진대에 학교발전기금 기탁

대진대 고시원 원우모임 1천만원 기금으로

대진대학교 고시원 원우모임인 왕방회(회장 김병태)는 지난해 12월 27일 모교인 대진대학교(총장 이천수)에 학교발전기금으로 1천만원을 기탁했다.

왕방회는 왕방고시원 출신 졸업생들이 2003년에 자발적으로 결성한 모임으로 법조인, 공무원, 회계사, 회사원 등 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약 3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기탁식에 참석한 왕방회 김병태 회장은 "모교의 사랑과 지원으로 현재의 왕방회가 존재하게 되었음을 상기하면서 앞으로도 학교의 발전과 후배들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왕방회는 대진대학교 졸업생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며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대진대학교 발전을 위한 동호회로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대진대학교 고시원 원우모임인 왕방회(회장 김병태)는 지난해 12월 27일 모교인 대진대학교(총장 이천수)에 학교발전기금으로 1천만원을 기탁했다.

“내 이름을 쓸 수 있게 돼 기뻐요”

영평초등학교 신바람 한글 교실 수료식

영평초등학교(교장 이호연)는 지난해 12월 31일 11시에 지난 6월부터 시작했던 신바람 한글교실 수료식을 가졌다. 영평초등학교 급식실에서 개최된 신바람한글교실 수료식은 그동안 한글교실에 참석했던 수료대상 13명의 할머니들과 겨울방학이 지난 도서 대출과 대출된 도서를 반납하기 위해 등교한 재학생 그리고 학교운영위원, 수료자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기애애하게 진행됐다.

영평초등학교 이호연 교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처음 시작할 때는 어르신들께서 글씨 쓰는 것도 서투시고 읽기도 여의치 않으셨는데 이제 제법 동화책까지 읽으시고 글씨도 푹푹푹 잘 쓰시는 모습을 보니 신바람 한글교실을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르치지 않고 시고 열심히 참석해 주셔서 이렇게 수료하시는 어르신들 참 자랑하고 훌륭합니다”고 수료하신 어르신들을 축하하고 “어르신들께서는 당당하게도 제1회 영평초등학교 신바람한글교실 수료자입니다. 이제 영평초등학교가 모교가 된 셈입니다. 앞으로는 모교를 아끼시는 마음으로 틈나시면 학교에 들려주십시오”라고 수료하신 할머니들에게 동문의식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영평초등학교는 수료자 전원에게 수료증과 기념사진 그리고 내의 한 벌씩 선물하고 축하했다. 정연재 영평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은 “나이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한글공부를 해야겠다는 신념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수료하시니 참 훌륭하게 보입니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더욱 열심히 참석하시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할머니들께서 공부하시는 모습이 되어 주셨다”고 밝혔다. 이날 수료한 어르신들 중에 김순여(영평면 영송리 75) 할머니는 “내 이름을 쓸 수 있는 것이 제일 좋았고, 집으로 오는 전단지나 세 글 용지를 읽을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또한 권형래(영평면 영송리, 71) 할머니는 “부조하는데 내 이름을 써서 보낼 수 있어서 좋았다. 물건을 사거나 나드리 할 때 물어 보지 않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좋았다”고 말했다. 영평초등학교는 2008년도에도 신바람 한글교실 사업이 계속되면 수료한 할머니들을 포함하여 참가를 희망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글 공부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영평초등학교는 지난해 12월 31일 11시에 지난 6월부터 시작했던 신바람 한글교실 수료식을 가졌다.

학생들에게 국제화 교육기회 제공 위해

대진대, 필리핀 국립대학(달리만캠퍼스)과 자매결연

대진대학교(총장 이천수)는 지난해 12월 21일 필리핀 국립대학교(달리만캠퍼스)와 자매결연을 맺었다.

이번 자매결연 협정은 대진대학교의 교육 목표인 국제인 양성을 위한 것으로 외국 대학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재학생들에게 다양한 국제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체결된 것이다.

교수 및 연구원 교환, 학생 교환, 학술 정보 및 자료의 교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번 자매결연 협정 체결로 다양한 해외교류 프로그램을 접하고 싶어하는 대진대학교 학생들에게 더 폭넓은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필리핀 국립대학교는 필리핀에서 가장 유명한 국립대학교로 달리만, 로스바노스, 마닐라, 비사야스 등 4곳에 캠퍼스가 있고, 이 대학교 졸업생들이 현재 필리핀의 정치, 행정,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실질적으로 필리핀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영북면 태권도 메카로 자리매김

영북중학교 태권도부 창단식 가져

영북중학교(교장 장기문)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2시 영북중학교 도서관에서 유기준 포천시청 문화체육과장을 비롯한 내빈 30여명과 태권도부 회원 등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태권도부 창단식을 개최했다.

개식사, 국민연례, 대회사, 축사, 창단지원금 전달, 선수선서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장기문 영북중학교 교장은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유산인 태권도는 이제 세계를 대표하는 무도이자, 스포츠로 자리매김했으며 태권도가 지난 교육, 평화의 또 다른 가치가 세계인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으므로 이처럼 소중한 태권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초·중·고 연계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오늘 창단식을 개최하게 된 것”이라며, “태권도로 영북중학교를 빛낸 동문에 박은국 전 포천시장, 국가대표로 활동한 김경진, 김길준, 최해경 동문이 있으며

이용화 동문은 국제태권도심관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영북중학교를 빛낸 선배의 전통을 이어받아 훌륭한 선수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순영배 영북중학교 운영위원장은 축사에서 “지난 11월 30일 영북초등학교 태권도부 창단에 이어 오늘 영북중학교 태권도부 창단을 받기며 태권도가 우리나라 국기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간 연계성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웠는데 장기문 교장께서 애써 주셔서 오늘의 결실을 맺게 될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하고 창단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날 창단식에서 포천시청 유기준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500만원의 창단지원금이 전달되었으며, 영북면 관내 초·중·고교에 태권도부가 창설되어 명실공히 태권도의 메카로 자리잡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미경 주부명예기자단 부단장 hsd5333@hanmail.net



영북중학교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2시 영북중학교 도서관에서 유기준 포천시청 문화체육과장을 비롯한 내빈 30여명과 태권도부 회원 등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태권도부 창단식을 개최했다.

함께 공부해요

심술지요(心術之要) ④

曲禮에曰禮는 不踰節하며 不侵侮하며 不好狎이니 修身踐言을 謂之善行이니라.

곡례가 말하기를 “禮(례)는 節(절도)를 넘지 말아야 하며 侵(침)하여 허(침해)하지 말아야 하며 親(친)히 하지 말아야 하며 狎(협박)하지 말아야 한다. 몸은 닦고 말은 실천하는 것을 착한 행실이라고 한다” 하였다.

예양을 망각한 행동이다. 남과 사귀어 있는 친밀이 정도에 지나쳐 공경하는 도리에서 벗어나는 안된다. 항상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말한 것은 반드시 실천하는 힘써야 한다.



양주준 본지 지면위원

“지나치게 공손한 것도 예가 아니다. (過恭非禮)” 하였으니 예절도 지나치면 도리어 예절을 손상한다. 남의 분야를 침범하거나 남을 업신여기는 것은

윤중성의 국제비즈니스미국영어



- 수와셈
7. <대화> : (3)
* 얼마나 걸리나요?
하우롱 윌비테이큰?
<How long will be taken?>
* 13 시간 정도 걸리니
잇택서바웃 펠티인어위스
<It takes about thirteen hours.>
* 어, 벌써 6시 되어가네
어, 잇설리리 개링씩서클락
<It's already getting six O'clock.>
* 서둘러야겠어요
유슈 허위압
<You should hurry up.>
* 회의가 몇시에 있지요?
찾타임 우일해브더미팅?
<What time we'll have the meeting?>
* 10시에, 5층에서,
어 테엔, 온더립스홀로어
<At ten, on the 5th floor.>

문의 : 윤 중 성 (017-723-4977) ccolyon@nate.com

가행문



김용주 학생명예기자·가행문 5년

일본사람들이 슬기롭게 재난사고를 예방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서해안 기름유출사고로 바다를 뒤덮은 기름을 하루라도 빨리 제거하여 울 여를 휴가는 서해안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일본 하우스텀버는 네덜란드를 모형으로 만든 곳으로 아주 큰 건물들과 탐, 종차가 있고, 여기의 불꽃놀이가 매우 재미있었다.

일본 견학을 다녀와서

일본사람들이 슬기롭게 재난사고를 예방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서해안 기름유출사고로 바다를 뒤덮은 기름을 하루라도 빨리 제거하여 울 여를 휴가는 서해안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일본 하우스텀버는 네덜란드를 모형으로 만든 곳으로 아주 큰 건물들과 탐, 종차가 있고, 여기의 불꽃놀이가 매우 재미있었다.

다음날 일본 놀이동산에 갔다. 관장님과 우리들은 롤러코스터를 탔다. 처음에는 무섭다가 한참을 타고나니 가슴속이 땀 뚫리는 것 같아 정말 신나고 재미있었다. 일본여행에서 친구들과 뜻 깊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서 너무 좋았다. 다음에는 우리가족과 다 함께 꼭 한번 오고 싶다. 일본이여 안녕.



일본여행을 통해 일본사람들이 재난사고를 슬기롭게 예방하는 시스템을 관람했다.

자유기고

초등학생 핸드폰 사용 통제되어야 하는가?

다양하고 편리한 기능과, 신선한 디자인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던 핸드폰이 요즘은 학부모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초등학생들의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그 원인이다. 실제 그 수업 시간에 핸드폰을 이용하여 문자를 한다거나, 게임을 하는 학생들이 자주 볼 수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초등학생들의

핸드폰 사용을 금하게 하지는 어른들의 여러 주장이 요즘 들어 많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남치 답했을 경우 등을 대표적으로 한 초등학생들의 의견도 있다. 이렇게 초등학생들과 어른들의 이러한 의견들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 사이에서, 신문이나 뉴스등의 언론에선 올바른 길잡이를 잡지 못하고, 핸드폰 판매사에서 계속해서 나

오는 핸드폰에 대한 기사거리로 가득하다. 하지만 초등학생들의 핸드폰 사용 통제가 점점 대중화되고 있음에 따라서, 언론들은 핸드폰의 기능이나, 디자인이 아닌, 좀 더 현실적인 면을 보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조은혜 학생명예기자단부단장 윤영주 4년

지하철에서 만난 천사 아줌마

나는 책 읽기를 참 좋아하고 독서 감상문도 즐겨 쓴다. 지난 여름 방학 때는 중앙 독서 논술 교육에서 주최하는 독서 감상문 쓰기 대회에 참가했는데, 지난해 10월 27일 토요일에 우수상을 받았다.

마침 그 날은 토요일 휴업일 날이어서 엄마와 나는 체험 학습을 할 겸 잘 됐다며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했다. 포천시청 앞에서 버스를 타고 의정부까지 가서 1호선, 4호선, 6호선 지하철을 바꿔 타며 백범 기념관까지 찾아갔다. 그 곳에서 삼장과 삼품으로 문화상품권 10만원을 받고, 백범기념관을 견학한 후에 다시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토요일 오후 여섯시쯤인데도 지하철에는 서있는 사람이 엄청 많았다. 손잡이를 잡고 서서 흔들리며 가고 있는데, 어떤 아줌마도 앞까지 빠진 조그만 아이와 내 포켓을 봐서 보이는 여자들이 데리고 서서 가고 계셨다. 나와 눈이 마주친 아줌마께서는

내 손에 들려있는 삼장을 보시더니 “그게 뭐야?” 하셨다. 내가 삼을 받은 것 때문에 신이 난 엄마께서는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이거요? 우리 딸이 독후감 쓰기 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것이예요.” 하시며 자랑하셨다.

얼굴이 하얗고 예쁜 아줌마께서는 나에게 “어머 축하해, 대단하다! 책을 많이 읽는 것은 정말 좋은 것 같다. 지연이는 책을 많이 읽으니까 훌륭한 사람들의 인생도 많이 알게 될 것이고, 모든 것도 책을 통해 많이 알게 될 것이지니 이 다음에 꼭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다. 아줌마가 지연이 이름을 꼭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어 TV에 나오면 연락할게, 옛날에 지하철에서 만났던 아줌마라고 하면 기억해 줘.” 하시며 책을 좋아하는 지연이에게 책 선물을 하고 싶으니 주소를 가르쳐 달라고 하셨다.

“아줌마네 딸들도 있는데 나에게까지 책을 사 주시겠어?” 하고 생각하며 기대도 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며칠 후 학교에 다녀오니 집에 택배 아저씨가 오셨다. 분쇄액 예쁜 상자 속에 책 다섯 권과 맛있는 초콜릿이 들어 있고 예쁘게 쓴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이 다음에 아주 멋진 사람이 되어있을 지연이를 생각하며 잠깐이지만 지하철에서 인연을 맺었던 아줌마가 보낸다. 너의 미래의 꿈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하렴.” 크리스마스도 아닌데, 산타 할아버지께서 보낸서 천사를 보내신 건가?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을 믿어 주시는 천사 전영숙 아줌마의 믿음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는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만 할 것 같다.

아니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 그 때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다. 그리고 나도 아줌마처럼 누군가에게 천사가 되고 싶다.



이지연 학생명예기자·포천초 4년

심리상담 ②

폭력적인 아동을 도와주는 방법

Q 결핍하면 바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는 우리아이 어떻게 도울 수 있나요?

A 폭력적인 행동은 주변사람들의 주위를 한 번에 모두 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가장 난감해 하는 문제행동입니다. 또한 폭력적인 행동은 곧 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러한 행동을 자주 목격한 아이들에게 쉽게 모방되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는 행동입니다. 폭력적인 아동을 도와주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하자면 첫째, 폭력이 허용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이러한 환경은 가족모두가 서로를 격려하고 인정하는 상호존중의 분위기에서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먼저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아이의 모델이 되셔야 합니다. 둘째, 폭력을 행사한 후에는 아이가 충분히 생각하고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특별한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자리 주변은 아동이 좋아하는 것들이 전혀 없는 곳으로 지정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동이 폭력을 행사한 후에 부모님은 “우리집에서는 누구도 사람을 때릴 수 없어, 일어나도 괜찮다고 말할 때까지 이 자리에 앉아있어”라고 이야기하여 폭력이 우리집에서 수용될 수 없다는 것을 단호하게 이야기 해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벌을 주면 아동이 거부하거나 생떼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조용히 아동을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을 수 있도록 잡으셔야 합니다.

셋째, 폭력적인 행동의 대안행동을 만들어 주세요. 어떤 아이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는지를 몰라서 폭력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 폭력을 사용하는지 관찰하시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말을 이야기하여 모델을 보여 주셔야 합니다. 마치



심리상담: 우리 심리상담센터 031-541-0954 유정현 우리심리상담센터 책임연구원